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과 신라 토기의 확산

- '토기제사법' 및 '양식적 선택압'의 실체-

Pattern of Jar with long necked Burial
in Tombs during Shilla Dynasty
and Spread of Shilla Earthenware.

-Funeral Ceremony Mode with
Earthenware and Selective Pressure-

김 대 환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

- I. 머리말
- II.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
- III.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의 지역별 사례
- IV. 장경호 부장 정형의 특징과 의미
 - 1. 장경호 부장 정형과 '토기제사법'
 - 2. 장경호 부장 정형으로 본 '양식적 선택압'
- V. 맺음말

국문 요약

이 글은 신라 고분에서 확인되는 장경호 부장 정형(pattern)을 찾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신라 토기 확산에 대한 2가지 가설인 '토기제사법(土器祭祀法)'과 '양식적 선택압(selective pressure)'의 실체를 설명하면서 신라 토기의 지방 확산론을 재검토한 것이다. 장경호 부장 정형이란 신라 고분에서 토기를 부장할 때, 동일한 형태 또는 유사한 장경호를 망자의 머리 쪽에 세트로 부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신라 고분이 분포하는 대부분 지역의 대형 무덤과 중·소형 무덤에서 많이 확인된다. 장경호 부장 정형은 시기적으로 볼 때, 신라 중앙인 경주지역에서 먼저 출현한 후 신라 지방에 점차 나타난다. 장경호 부장은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광범위한 정형이 확인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정형은 기왕에 제안된 '토기제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토기제사법'의 실체는 이러한 장경호를 이용하는 제사 및 이와 같은 토기의 최종적인 배치나 배열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양식적 선택압'은 신라 토기의 확산을 설명하는 중요한 가설 중 하나인데, 신라 정치 지배력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양식적 선택압'은 '토기제사법'의 수용 과정으로 볼 때, 신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발신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장경호 부장 방법과 같은 '토기제사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신라 토기의 확산 과정은 신라 지배력의 확대와 같은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신라 토기, 확산, '양식적 선택압', '토기제사법', 장경호, 부장 정형

I. 머리말

초창기 신라 토기 연구는 시간적·공간적 분포 연구와 편년이 주종을 이루었다(김원용 1960). 그런데 최근에는 초창기의 연구 수준을 넘어 신라와 가야의 구분 및 신라 중앙 세력의 확대와 관련해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최종규 1983, 이희준 1996a·1996b). 그래서 현재 많은 연구자는 신라 토기의 확산을 신라 중앙 세력의 지배력 확대 결과로 이해하고, 신라 중앙 세력의 지방 진출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이희준 2007). 그것은 신라의 성장 및 발전과 가장 잘 들어맞는 고고 자료가 바로 신라 토기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 토기의 확산을 신라 지배력 확대, 또는 영역의 확대로 이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이미 여러 번 제안된 바 있듯이(예를 들어 이성주 1993a, 2003 등) 신라 토기의 확산에 당시 신라 중앙 세력이 어떻게 관여하였는가를 논증하는 것이다. 즉 신라 토기의 확산이라는 고고학적 현상을 신라 지배력의 확산 결과로 이해하려면, 그러한 확산이 나타나게끔 한 중앙 세력의 방식을 고고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가 이러한 논증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부분을 고고학적으로 논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이미 역사학적 연구 성과에 의해 신라화¹⁾된 지역에서 나오는 신라 토기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대다수인 까닭에 있다.

다만 이점에 대해 주목되는 이해 방식 중 하나는 신라 국가 단계의 중심지에서 출현한 토기 양식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이유가 ‘양식적 선택압(selective pressure)’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가설이다(이희준 1996a). 이 가설은 지금

1) 신라화란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이성주 2012), 여기서는 일단 신라의 간접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까지 대다수가 논증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지방에서의 신라 토기 출현을 ‘양식적 선택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신라 지방에서 ‘양식적 선택압’을 받아 신라 토기를 제작하게 되었다는 설명인데, 이 ‘양식적 선택압’은 매우 정치성이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양식적 선택압’을 받은 주체는 누구이며 그것이 당시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의 ‘압(pressure)’이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토기 제작과 생산을 당시 공방에서 공인이 담당했다면, ‘양식적 선택압’을 받은 대상은 공인이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공방을 어떻게든 관리하거나 장악하고 있었던 토착 사회 지배층인지, 또 토착 사회 지배층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양식적 선택압’을 받았다면, 그 ‘압’이 어떻게 제작자에게 전달되고 수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

최근 양식론적 접근에서는 이 부분을 ‘토기제사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이성주 2009). 이 가설은 신라·가야 토기 양식의 생성과 소지역 양식의 성립에 대해 양식을 실질적으로 발현하게끔 한 제작자라는 단위로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양식의 생성을 제작자의 기술적인 부분에 주목해 논의하고, 특정 지역에서 형성된 양식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원인으로 ‘토기제사법’의 확산과 수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소지역 양식이 나타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토기제사법’은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 아닐 수 없으나 다만, 이 가설은 ‘토기제사법’의 실체가 구체적이지 않고 아주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토기제사법’은 신라 중앙의 토기를 지방에서 모방하는 이유에 대한 해석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가설이 될 수 있으나, 그 실체를 고고학적으로 실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2가지 가설은 나름의 한계를 가지지만 신라 토기의 지방 확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가장 설득력 있는 이해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견해를 절충해 종합하면, 신라 토기 양식의 지방 확산은 ‘토기제사법’이라는 형태로 지방에 전해지며, 지방의 각 공방은 ‘양식적 선택압’을 받아 신라 토기를 모방하게 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양식적 선택압’은 어떠한 배경으로 지방에 전해지며, ‘토

기제사법'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것인가를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기의 부장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토기를 사용하는 제사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사 공간이나 무덤 안에 배치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한 부장 방식 중 이 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장경호를 부장하는 방식에 어떤 정형이 확인되는 점이다²⁾. 그 정형이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대부장경호나 장경호 1쌍을 주로 망자의 머리 쪽에 부장하는 방식인데, 이 글에서는 이것을 '장경호 부장 정형'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장경호 부장 정형은 '토기제사법'의 실체와 '양식적 선택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고고학적 실례로 생각되는데,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정형을 찾아 자세히 기술한 후 특징을 살펴보고, '토기제사법'과 '양식적 선택압'의 실체와 관련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영남지방 각 지역의 신라 고분 중 장경호 부장 정형을 찾아 기술하고, 그 특징을 유형화한 후, 그러한 특징이 의미하는 것을 '토기제사법'과 '양식적 선택압'이라는 모델과 결부시켜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

Ⅱ .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

지금까지 신라 토기의 부장 방식에 대한 연구는 특정 고분군 단위, 특정 지역 단위로 전체적인 양상만 서술된 점이 많다. 가령 어느 고분군, 어느 지역에서는 '토기 부장은 머리 쪽 부장이 우세이고, 점차 머리, 발치 부장이 주류가 된다.'고 하는 서술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토기 부장에 대해 기술이 아주 간단하게 된 것은 무덤 출토 토기가 출토 양도 많고 파손 및 교란되어 출토되기 때문에 출토 맥락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으로 금공품(박보현 1995, 이희준 2002, 이한상 2004)이나 철기(황중

2) 이외에도 통형기대나 발형기대와 같은 기종에서도 정형이 일부 관찰되는데, 이 글에서는 지면의 한계도 있고 논지를 뚜렷이 하기 위해 우선 장경호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 2003)와 달리 일정한 부장 정형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고, 넓은 지역 단위로 정형성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는 자연스럽게 신라 토기의 성립 과정이나(이성주 1993b, 이희준 1996a), 지방 출현 시기와 과정(이희준 1998), 지역 편년(藤井和夫 1978 · 1979 · 1981 · 1982, 定森秀夫 1981 · 1982 · 1988), 양식의 생성 과정(이성주 2009), 제작 및 소성 방식(홍진근 2006) 등에만 한정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대체로 출토 맥락과는 분리된 채 연구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 기종에 주목해 보면 신라 토기가 출토되는 고분에는 일정한 정형이 확인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대부)장경호의 부장 방식이다. 신라 토기가 출토되는 대형묘와 일부 중 · 소형묘에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해, 동일 공방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1쌍의 장경호 또는 대부장경호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대표적인 신라의 고총인 경산 임당유적 고분군, 대구 문산리고분군, 영덕 괴시리고분군, 양산 북정리고분군, 창녕 교동고분군 · 송현동고분군, 의성 대리리고분군에서 대부분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출토되는 매장시설이 신라의 적석목곽묘와는 달리 지역성이 매우 강한 묘제(이희준 1998, 김대환 2002)임에도 장경호 부장 정형은 신라 중앙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묘제의 지역성과는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부장 위치도 1쌍을 머리 쪽에 부장하거나 문양이 화려한 장경호를 복수 부장하는 방식은 경주지역과 매우 유사한 현상이라서 신라 토기가 출토하는 고분에는 마치 매장 의례에 어떤 정형이 있었다고 할 정도이다. 또 경산지역은 토착 지배층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부장 방식이 5세기 말부터 하위 고분군의 부장 방식으로 확산하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이러한 장경호 부장 정형은 초기국가 신라(김대환 2012b)의 중앙인 경주 지역과 매우 유사하고 경주에서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기 때문에 신라 토기의 확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신라 중앙과 지방의 고분을 대상으로 장경호 부장 정형의 실례를 소개하고, 그 부장 정형을 통해 신라 토기 확산을 설명하는 모델인 ‘토기제사법’과 ‘양식적 선택압’의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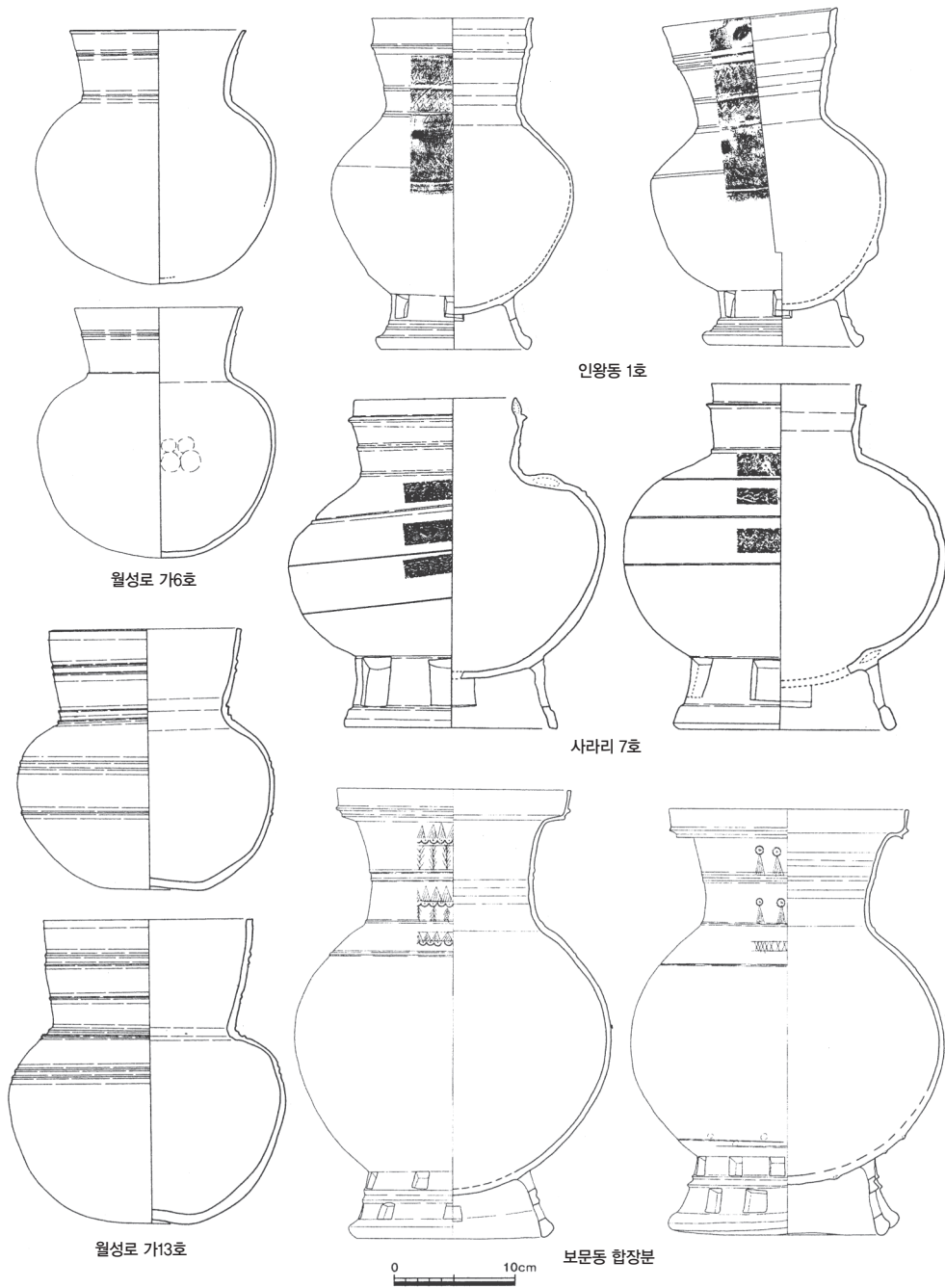
체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룰 신라 고분은 자료가 워낙 방대하므로 신라 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하는 4~6세기 영남지방 고분을 대상으로 하며, 부장 양상을 파악하기 쉬운 각 지역 상위 고분인 소위 '고총'(김용성 1996, 이희준 1997)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며,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하위 고분군의 양상도 검토하기로 한다.

Ⅲ.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의 지역별 사례

1. 경주지역(도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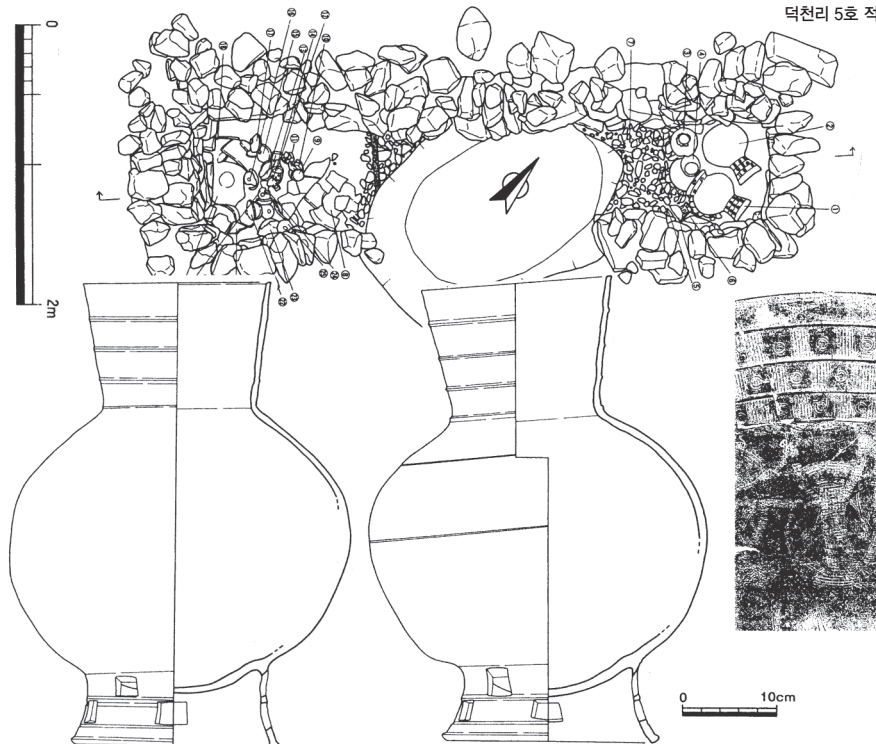
신라 장경호가 가장 먼저 출현한 곳은 역시 경주지역이므로 장경호의 부장 방식 역시 경주에서 정형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주목되는 자료로 월성로 가6호묘와 13호묘(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1990)를 들 수 있다. 가6호묘는 적석목곽묘의 피장자 머리 쪽 유물 일부가 조사된 것으로, 원저단경호로 보고된 3점은 초기 장경호로 보아도 좋으며, 이 중 경부 중상위에 1조의 돌대를 돌린 2점은 경부와 동부 경계의 돌대 유무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진 1쌍의 장경호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가6호 단계를 전후하여 1쌍의 단경호를 머리 쪽에 부장하는 방식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가13호에서도 총 3점의 장경호가 출토하였는데, 이 중 동부에 돌대를 돌린 2점은 각각 크기와 돌대 위치 등은 약간 다르지만 거의 동일한 기형을 가진 1쌍의 장경호로 판단되며, 출토 위치 역시 피장자의 머리 쪽으로 추정된다³⁾. 다음으로 5세기 전반의 사라리 7호 적석목곽묘(영남문화재연구원 1999)에서 유개식 대부장경호 1쌍이 머리 쪽에, 1쌍의 장경호가 발치에 부장되어 있다. 인왕동 1호 적석목곽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에서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이 2세트 출토되었는데 모두 머리 쪽에 부장되었다. 또 경주 덕천리고분군 5호 적석목곽

3) 가13호묘의 경우 피장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더라도 이 장경호의 출토 위치는 피장자의 머리 쪽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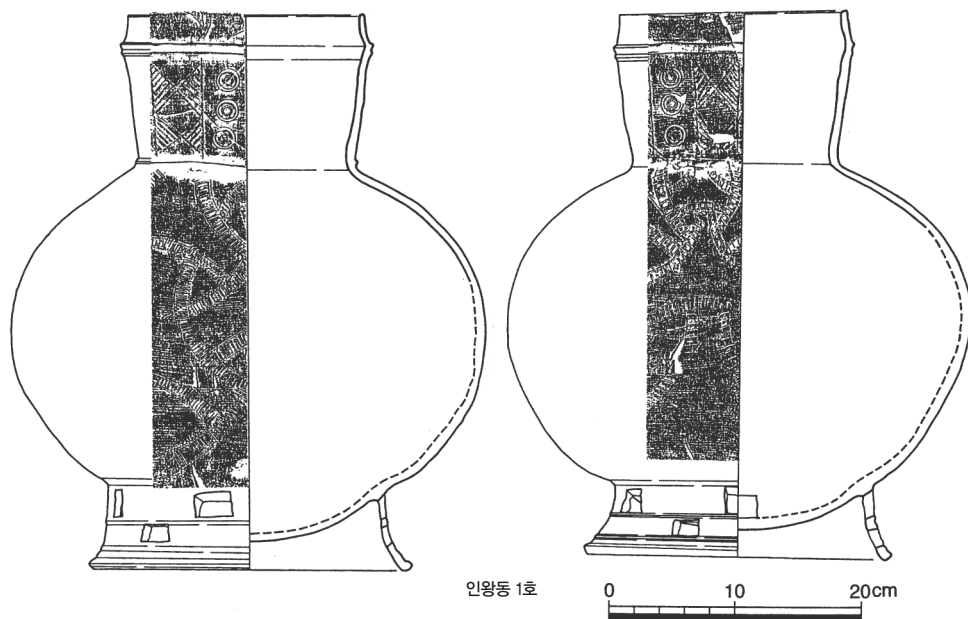


[도면 1] 경주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덕천리 5호 적석목곽묘



덕천리 5호



인왕동 1호

[도면 2] 경주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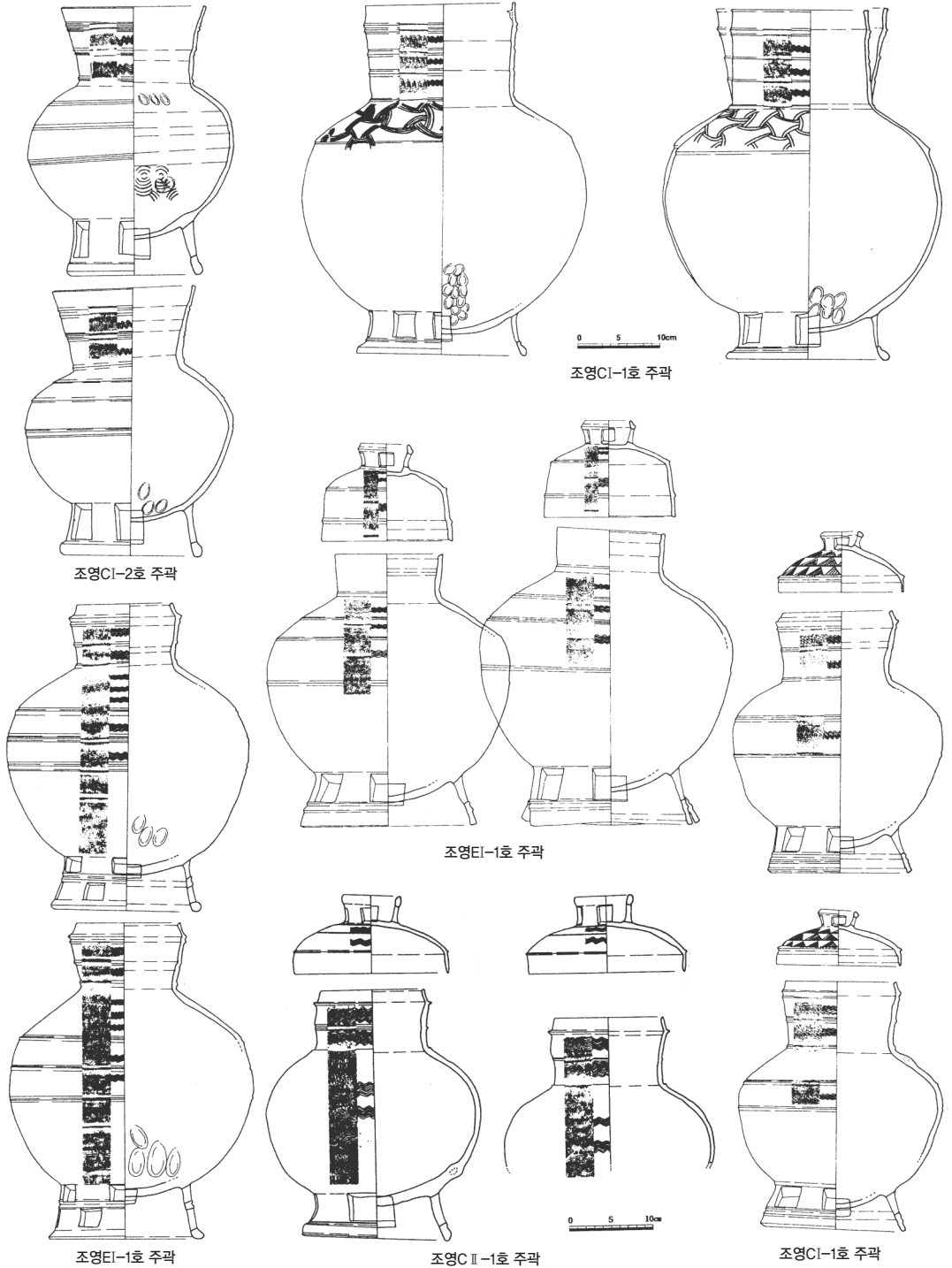
묘에서도 1쌍의 대부장경호가 피장자의 머리 쪽에서 나란히 병렬로 부장되어 있었다(중앙문화재연구원 · 경주시 2005). 경주 노서리 4호분에서도 머리 쪽 부장곽에 동형의 장경호 1쌍과 대부장경호 1쌍이 부장되어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0). 황혈식 석실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경주 사라리 525번지 6호 황혈식 석실묘(영남문화재연구원 2005)와 보문동 합장분(구 보문리부부총, 국립경주박물관 2011)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경주지역에서는 4세기 중후반 또는 5세기 전반부터 1쌍의 대부장경호를 머리 쪽에 부장하는 방식이 정형화되기 시작하여 황혈식 석실의 늦은 시기까지 유지된다. 또 동형의 대부장경호를 1쌍 이상 부장하는 예도 많이 확인되며, 덕천리 5호와 인왕동 1호 적석목곽묘의 예처럼 장경호의 동체 외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도 발견된다(도면 2).

2. 경산지역(도면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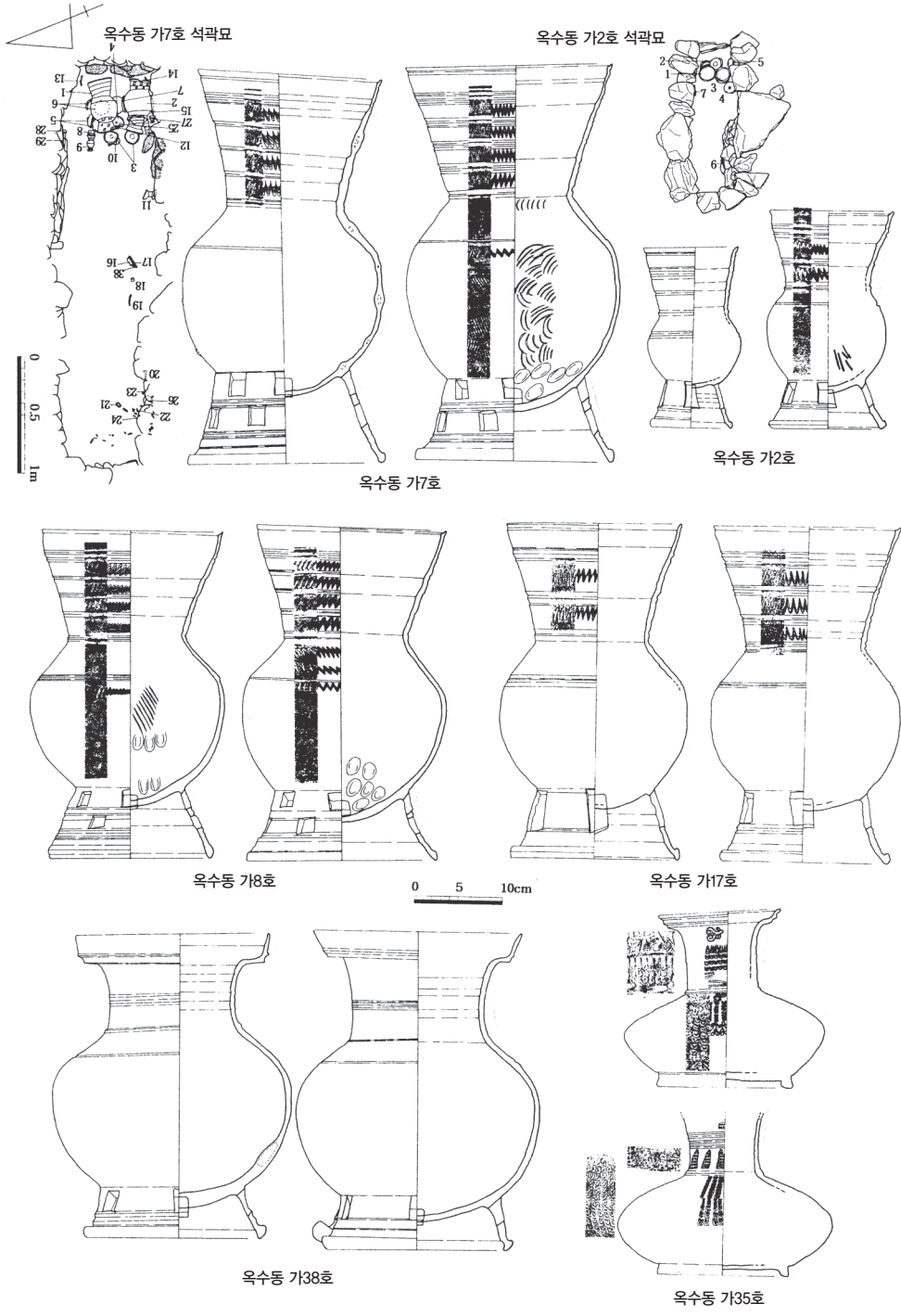
경산지역의 중심 고분군인 임당유적에서 다수 확인된다. 5세기 전반의 조영CⅡ-1호 주곽에 유개식 대부 장경호 1쌍이 머리 쪽에서 출토되었으며, 5세기 중엽의 조영CⅠ-1호 주곽에 동형의 대부장경호 2쌍이, 또 조영EⅠ-1호 주곽에서도 동형의 대부장경호 2쌍이 각각 출토하였다. 이처럼 임당유적 고층에서는 신라 토기양식의 출현기부터 1쌍 또는 그 이상의 장경호를 머리 쪽에 부장하는 방식이 꾸준히 확인된다. 경산지역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러한 부장 방식이 하위 고분군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임당 중심읍락의 하위 고분군인 대구 시지지구 고분군에서는 머리 쪽에 1쌍을 장경호를 나란히 부장하는 방식이 다수 확인되는데, 소형 무덤까지도 확인되며, 석실묘까지 이어지고 있다(도면 4). 이로 보아 장경호 부장 방식은 신라로부터 전래된 이래 계속해서 토착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규범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부산지역(도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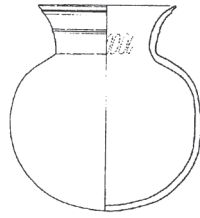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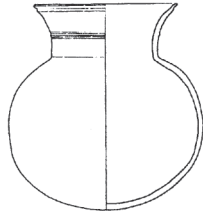
북천동 10·11호묘의 10호 부곽에서 동형의 유개식 대부장경호가 1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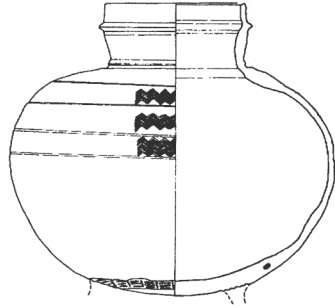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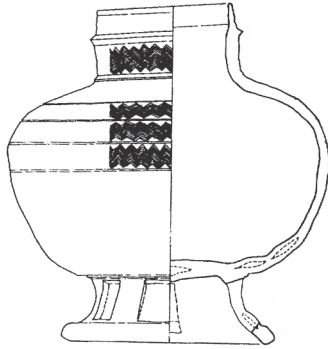
[도면 3] 경산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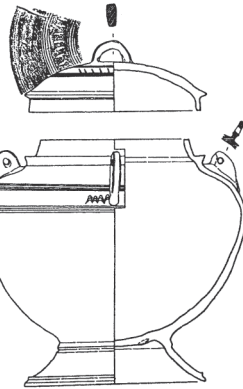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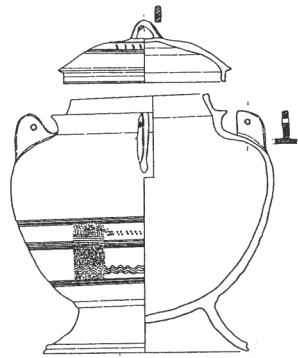
[도면 4] 경산지역 출토 (대부)장경호:장기간 지속된 대부장경호 부장 전통(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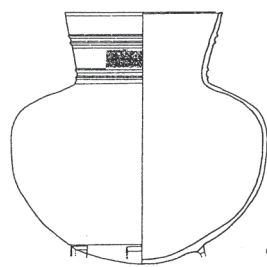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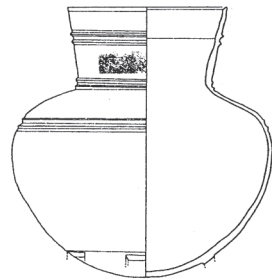
복천동 22호 주곽



복천동 10호 주곽



복천동 53호 주곽



복천동 53호 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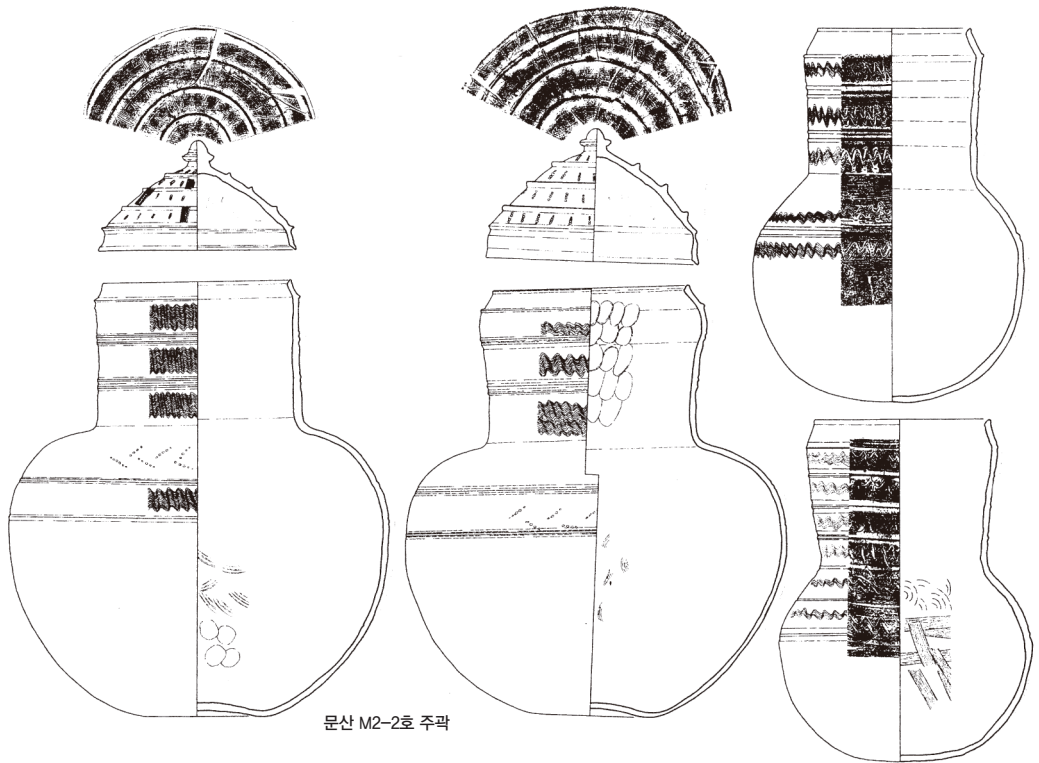
[도면 5] 부산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출토되었으며, 동형의 원저 장경호도 여러 점 확인된다(부산대학교박물관 1982·1983). 21·22호묘 중 21호 부곽에서도 원저장경호가 여러 점 출토되었고, 22호 주곽에서는 동형의 원저장경호가 1쌍 출토되었는데, 출토 위치는 머리 쪽과 발치 측에서 각각 발형기대와 세트로 부장되었다(부산대학교박물관 1990). 복천동 53호묘 부곽에서도 대가 깨어진 동형의 장경호 1쌍이 출토되었으며, 이외에도 동형의 유개대부호가 1쌍 출토되었다(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2).

4. 대구지역(도면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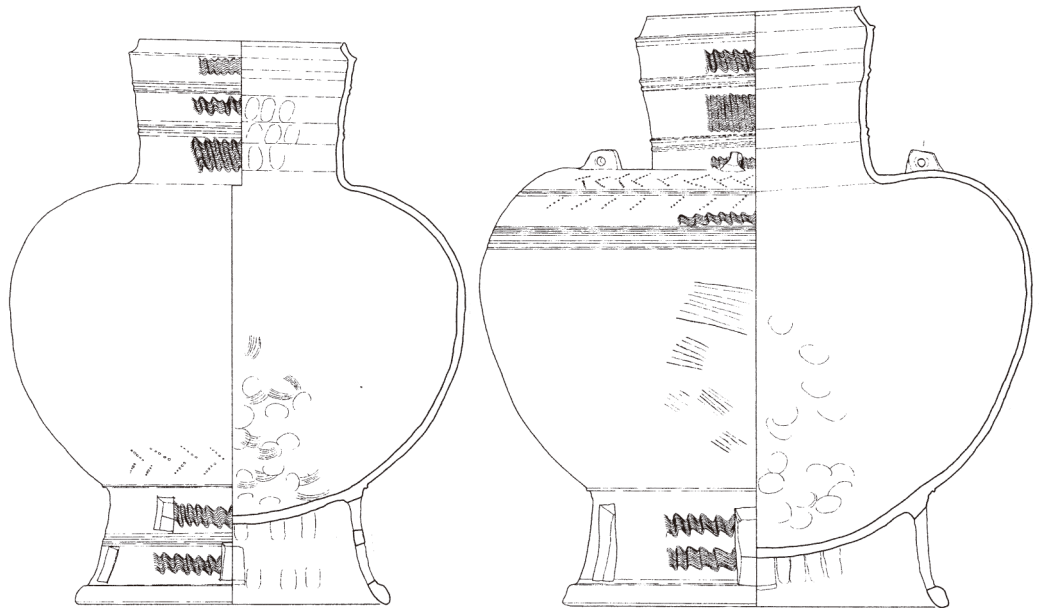
대구 달성고분군과 대명동고분군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자료뿐이어서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여기서는 최근 조사된 자료에 한정해 살펴보자. 우선, 다사지구 고총군 중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달성 문산리 M2-2호 석곽묘 주곽에서 유개장경호 1쌍이 발형기대와 세트로 출토되었으며, 문산리 M2-1호 석곽묘 부곽에서도 동형의 장경호가 여러 쌍 출토되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이 중 일부는 토착적인 특징이 많은 이곳의 지역양식으로 추정된다. 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이 발굴한 대형봉토분 1-1호(주곽)와 2-2호(부곽), 3-3호(부곽)에서 3-5호(부곽), 4-2호(부곽)에서 동형의 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특히 3호 부곽에서 여러 쌍이 출토되었다. 4-3호(주곽)에서는 동형은 아니지만 유개대부장경호 1쌍과 유개장경호 1쌍이 피장자의 머리 쪽에서, 4-4호(부곽)에서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이 각각 출토되었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또 화원지구 고총 중 성산리 1호분 주곽에서 피장자의 머리 쪽에 동형은 아니지만 장경호 1쌍이 부장되었으며, 3곽에는 머리 쪽과 발치에 각각 유사한 장경호와 대부장경호를 1쌍씩 배치하였다(경북대학교박물관 2003).

블로지구의 블로동고분군 91호분 2-1곽 교란층 출토품 중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동형으로 생각되는 대부장경호가 1쌍 있다. 91호분 4곽에서도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이 2세트 출토되었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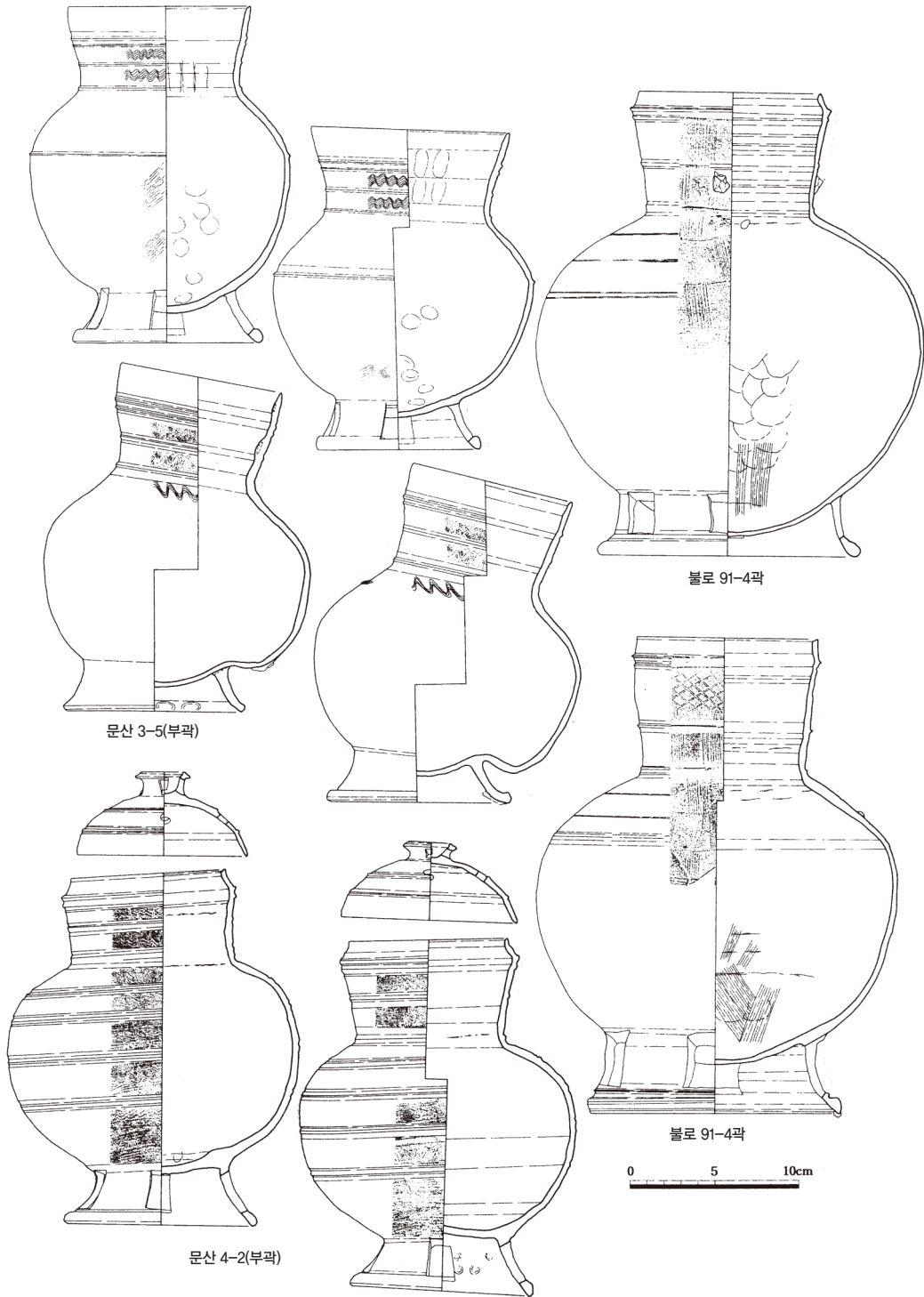
문산 M2-2호 주곽

화원성산 1호 주곽



문산 M2-1호 부곽

[도면 6] 대구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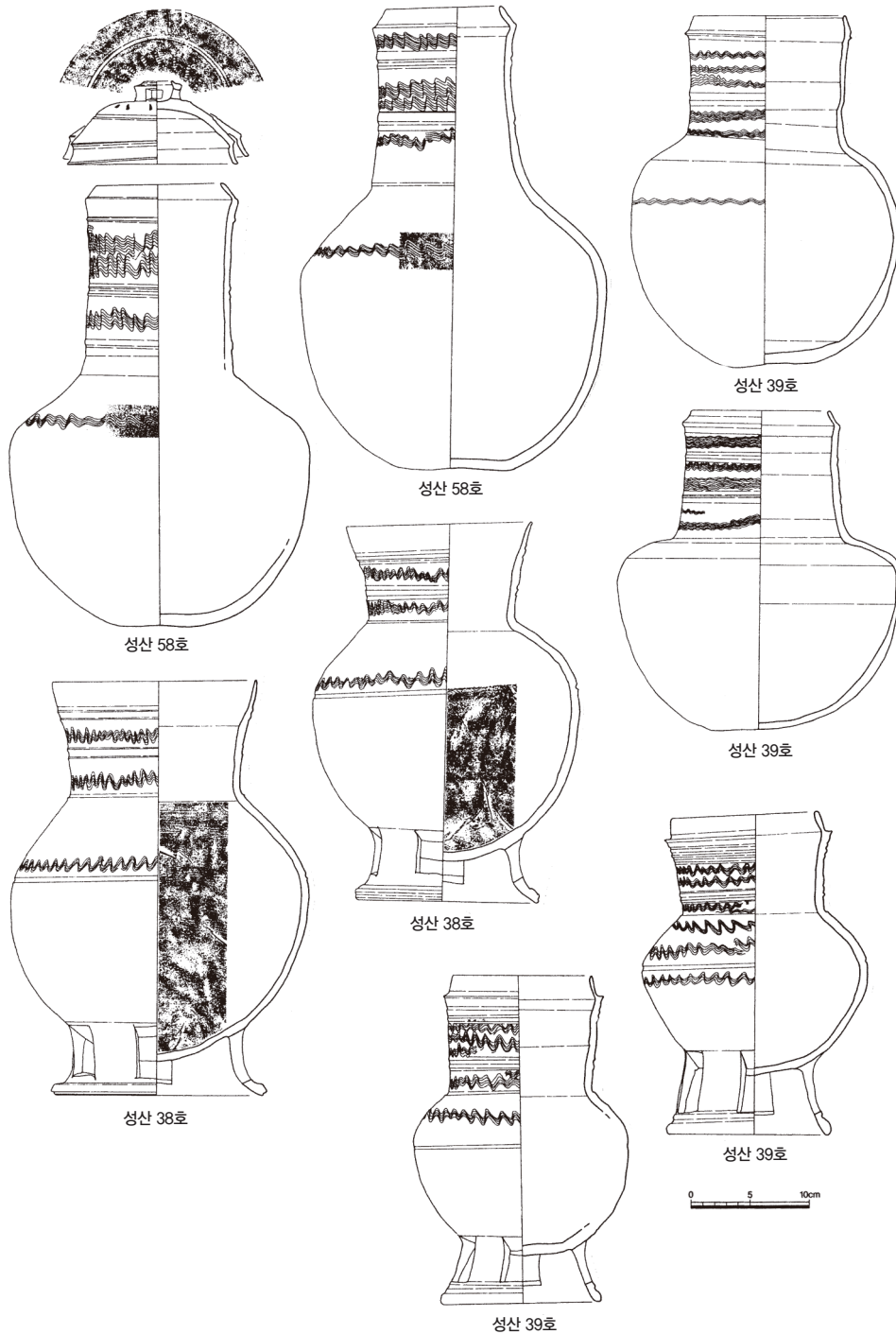
[도면 7] 대구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5. 성주지역(도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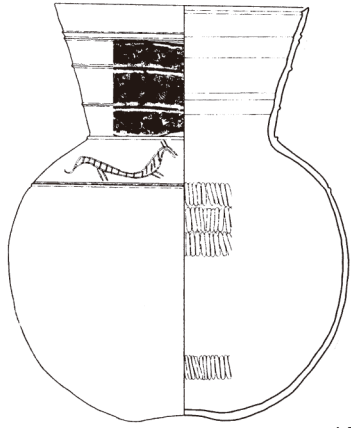
성주 성산동고분군에서 몇 가지 사례가 확인된다. 38호묘에서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이 출토되었다. 보고서 기술에는 이 2점의 장경호 출토 위치가 분명하지 않으나, 출토 상태로 볼 때 서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피장자의 두 향이 서쪽이므로 머리 쪽에 1쌍의 대부장경호를 세트로 부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장경호는 경주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성주산 또는 성주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되어 이입된 것일 수도 있다. 58호묘 부장곽에서 동형의 장경호 1쌍이 출토되었는데, 성주지역양식으로 생각된다. 58호묘의 피장자 머리 쪽에서 2점의 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한 점은 대부장경호이고, 다른 한 점은 장경호인데, 대를 의도적으로 깨뜨려 부장한 것으로 보고자는 판단하였다. 이외에도 39호묘에서 동형의 장경호가 여러 쌍 확인된다(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06).

6. 창녕지역(도면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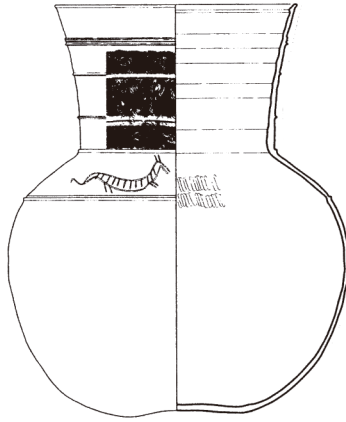
창녕 교동 1호분에서 장경호 여러 점이 출토되었는데, 역시 피장자 머리 쪽에서 동형의 유개장경호 1쌍이 확인되었다. 창녕지역양식으로 추정된다. 2호분에서도 피장자 머리 쪽에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을 부장하였다. 3호분에서 여러 점의 장경호가 출토되었으며, 피장자 머리 쪽에 동형의 유개장경호 1쌍이 출토되었다(동아대학교박물관 1992). 송현동 6호분에서 여러 점의 장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이 확인된다. 또 연결된 7호분에서도 여러 점의 장경호 중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이 확인되었는데, 1점은 목관과 남 단벽 사이에서, 나머지 1점은 상부 퇴적토에서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상부 퇴적토 유물은 유물 배치도로 보아 목관과 남 단벽 사이, 즉 피장자의 머리 쪽에 나란히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화려한 문양이 시문된 부가구연장경호 1쌍이 출토되었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송현동 15호분에서도 동형의 장경호 3쌍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1쌍은 장경호의 견부에 말 무늬를 시문한 것이며, 다른 1쌍은 부가구연장경호인데, 전술한 송현동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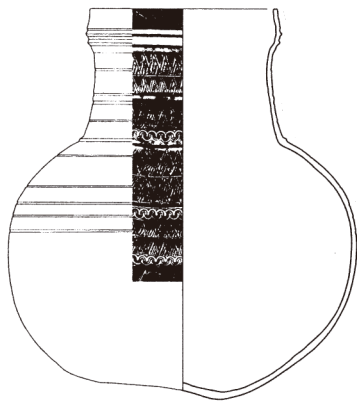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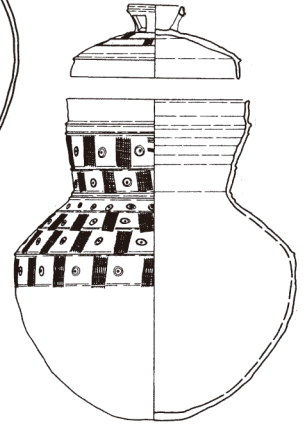
[도면 8] 성주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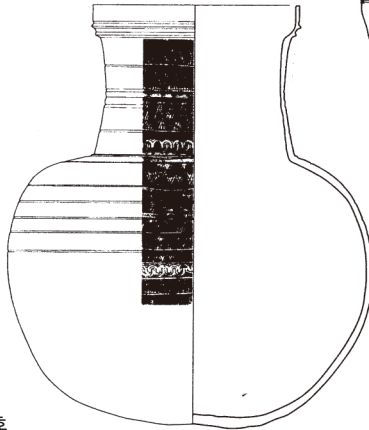
송현 1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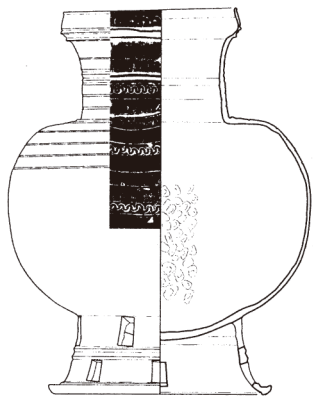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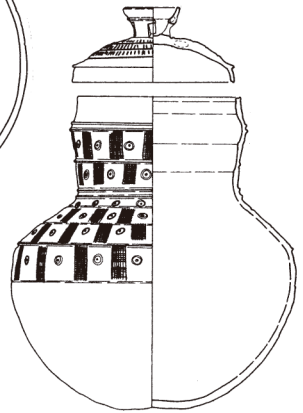
교동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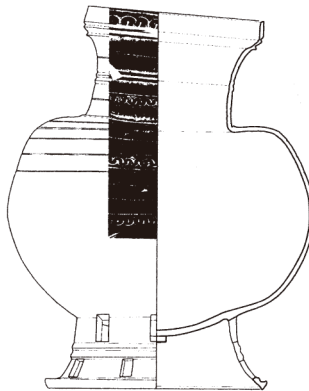
송현 7호



교동 1호



송현 15호



0 5 10 15cm

[도면 9] 창녕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호 출토 부가구연장경호와 유사하다. 2쌍 모두 석실 내부 교란층에서 출토되어 정확한 부장 위치는 알 수 없다. 마지막 1쌍은 횡구부 동벽 토기군과 횡구부 서벽 토기군1에서 각각 출토되었는데 모두 순장자가 있는 복단벽에 부장된 것이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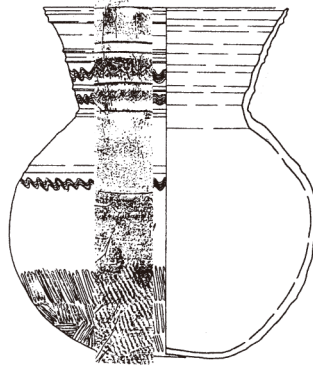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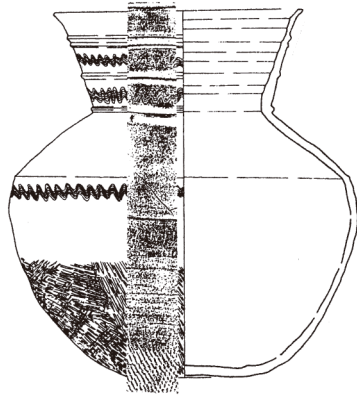
7. 양산지역(도면 10)

일제강점기 조사된 부부총이 위치하는 북정리와 신기리고분군에서 장경호 부장 정형이 잘 확인된다. 부부총은 피장자의 머리 쪽에서 장경호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동형의 장경호 1쌍과 동형의 유개대부직구호 1쌍 등이 출토되었으며, 기형이 다른 유개대부장경호도 1쌍 확인된다(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이 중 장경호 1쌍은 양산지역양식, 유개대부직구호는 경주산으로 생각된다. 1990년 동아대학교박물관은 북정리고분군 중 부부총을 재조사하면서 부부총의 남쪽 구릉 사면을 조사하였는데(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심봉근 1994), 이때 조사된 금조총에서 피장자의 머리 쪽에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부가구연대부장경호 직전 단계의 것으로, 전형적인 경주산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북정리 제4-가호분에서 1쌍의 대부장경호가, 8호묘에서 동형의 유개장경호 1쌍이 발형기대와 세트로 피장자의 머리 쪽⁴⁾에서 출토되었는데, 전자는 양산지역양식의 토기로 추정된다. 또 14호묘에서도 기형에 차이는 있으나 여러 점의 장경호가 머리 쪽에 부장되었다. 동일 고분군인 신기리고분군 제5호분에서도 머리 쪽에 동형의 대부장경호 1쌍을 부장한 것이 확인되는데(심봉근 1996), 이 대부장경호는 양산지역양식이 아니라 경주산 토기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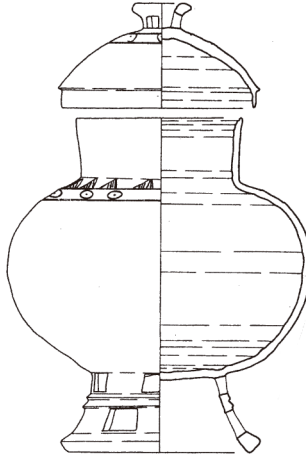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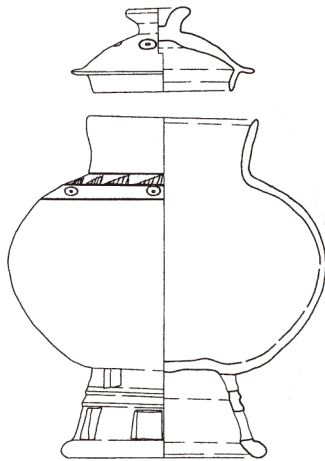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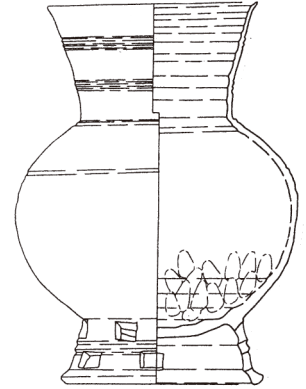
8. 상주지역(도면 11)

상주지역의 중심고분군은 분지별로 존재하는데, 장경호 부장 정형을 잘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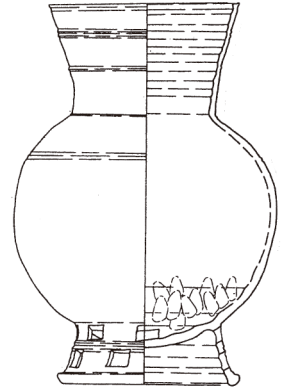
4) 정확하게 말하면 피장자를 기준으로 피장자 머리 오른쪽 부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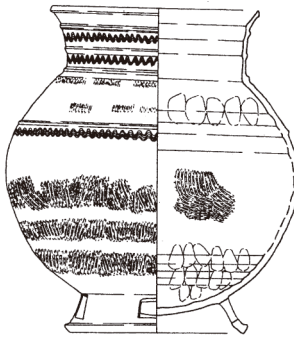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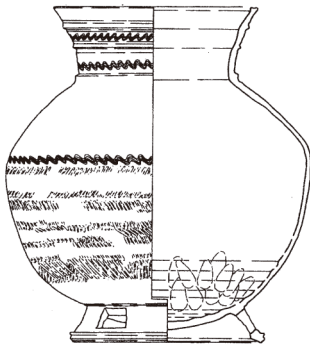
부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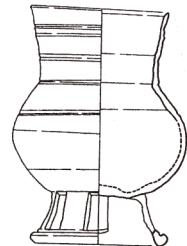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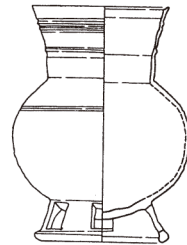
부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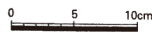
부부총



부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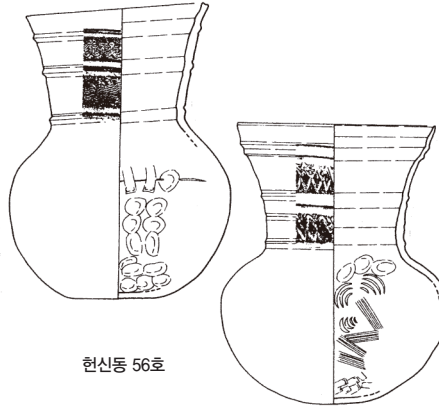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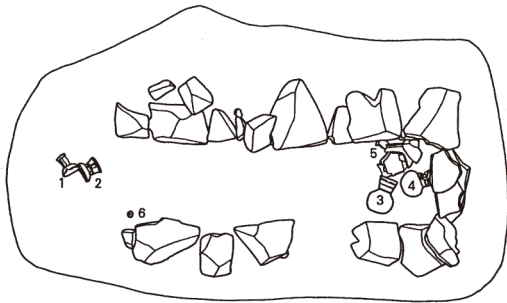


부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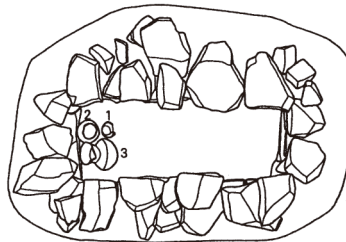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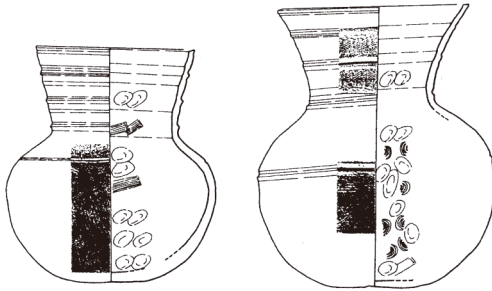


[도면 10] 양산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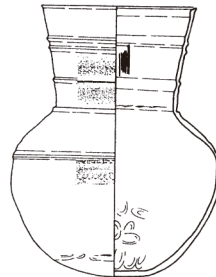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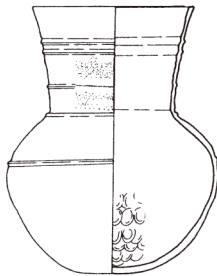
0 1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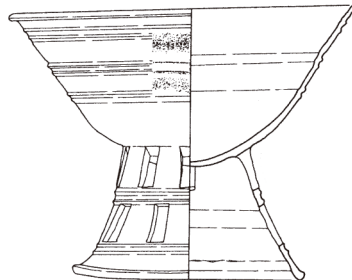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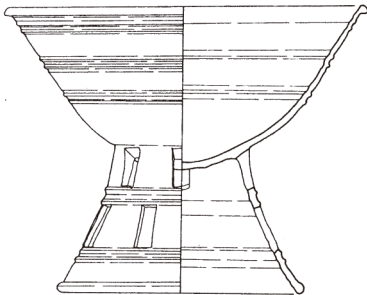
한신동 56호



한신동 64호



0 5 10cm



병성동 4-1호

[도면 11] 상주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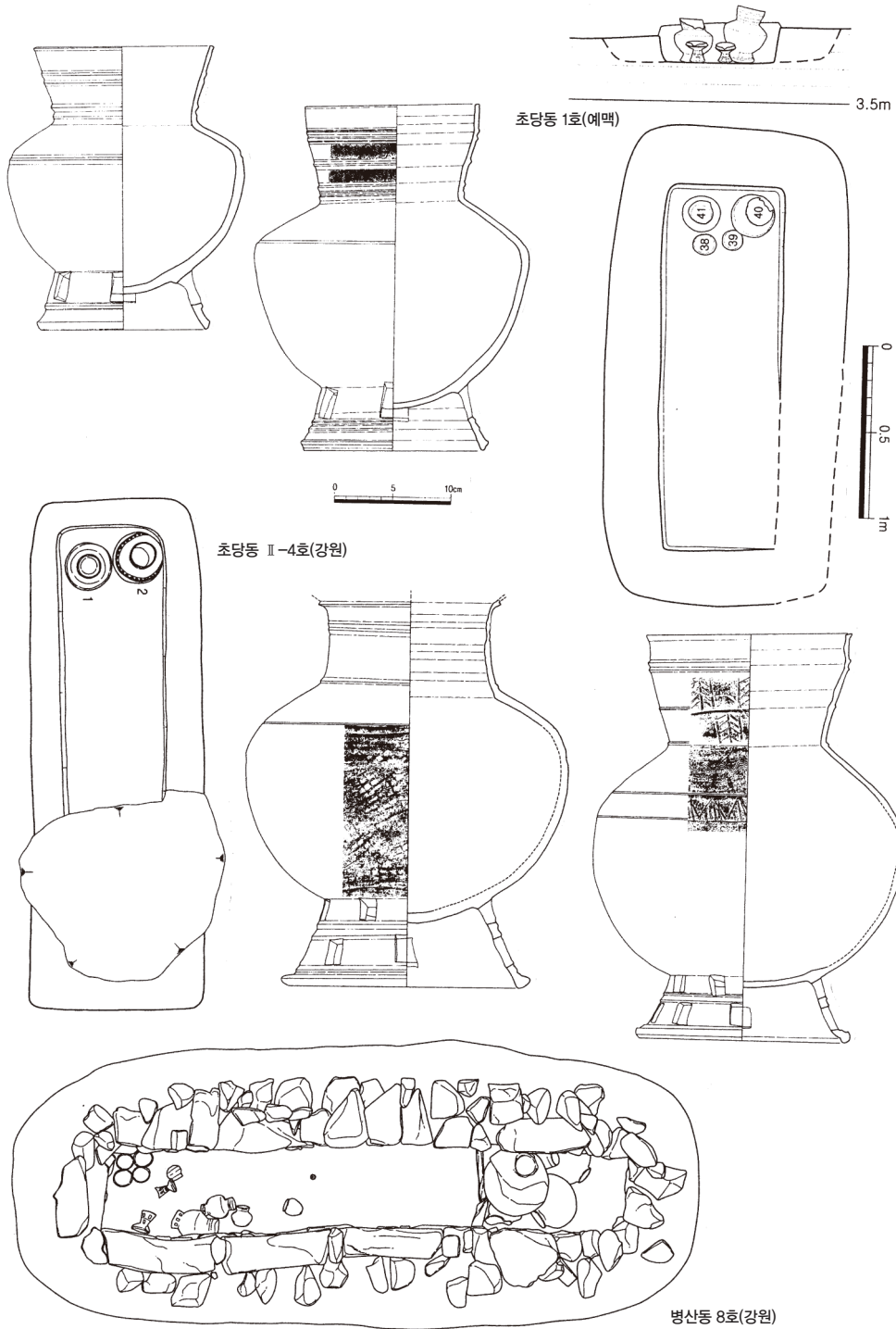
려주는 대형묘는 대부분 도굴 탓에 대부분 토기 부장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별 아주 개성이 강한 기종 구성을 가지고 있다(이성주 2004). 그래서 장경호 부장 정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중 한 곳이다. 하지만 소형묘에서 장경호 부장 정형이 일부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이 지역에도 장경호 부장 정형이 존재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병성동 4-1호에서 출토된 동형의 장경호 1쌍이 있는데, 발형기대와 세트로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소형묘인 헌신동 56호묘와 64호묘 등에서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장경호가 망자의 머리 쪽에서 출토되었다(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2003c).

9. 강릉지역(도면 12)

강릉지역 역시 고총의 도굴이 심해 대형묘에서는 장경호 부장 정형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상주지역과 동일하게 일부 중, 소형묘에서 장경호 부장 정형이 나타나는데 그 예가 바로 초당동과 병산동고분군이다(도면 12). 이 때문에 강릉지역에도 이러한 정형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역시 고총은 아니지만, 최근 보고된 안현동고분군 4호, 5호, 6호, 16호, 17호, 18호, 36호 목곽묘에서 동형은 아니지만 머리 쪽에 장경호 2점을 부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 특이하게 안현동 14호 목곽묘에서는 4점의 장경호 중 1쌍으로 추정되는 장경호 2점이 머리 쪽에서 출토되었는데, 1점은 장경호이고 나머지 1점은 대부장경호이나 대를 깨어 장경호 1쌍으로 맞추어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예맥문화재연구원 2011).

10. 의성지역(도면 13)

대리리 3호분 1곽의 피장자 머리 쪽에 장경호 1쌍이 확인되었는데, 완전히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이 2점을 1쌍으로 해 장경호를 부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경북대학교박물관 2006). 이것은 의성지역양식으로 추정된다. 또 최근 경북문화재연구원이 조사한 대리리 2호분 A-2호에서도 1쌍의 동형의 장경호



[도면 12] 강릉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가 출토된 바 있다(권혜인 2010).

11. 안동 지역(도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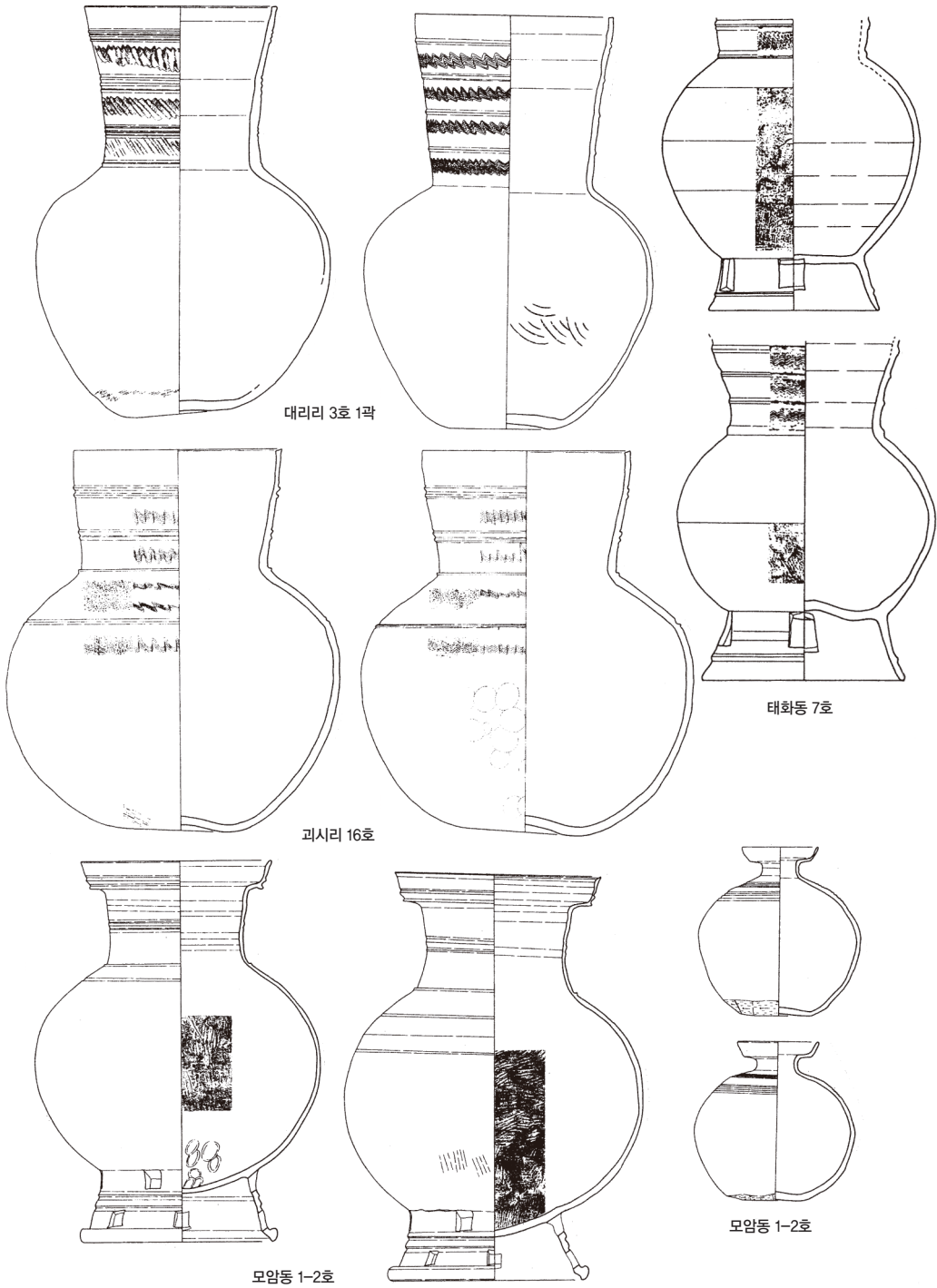
태화동고분군은 안동의 중심고분군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 이 태화동 7호묘에서는 3점의 대부장경호가 출토되었고, 이 중 2점이 남단 벽에서 출토되었다. 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의 출토 상태로 보아 머리 쪽은 남쪽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2점은 머리 쪽에 부장된 것이 된다. 1점은 경부가 대부분 깨어졌고 나머지 1점은 경부 상단만 깨어져 기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매우 유사한 기형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안동대학교박물관 1998).

12. 김천지역(도면 13)

모암동 유적 1호분의 부곽에서 동형의 장경호 1쌍이 출토되었는데, 부가구연장경호이다. 그리고 같은 부곽에서 동형의 유개대부직구호 1쌍(개는 차이가 있음)과 동형의 병 1쌍도 함께 출토되었으며, 동일한 형태의 대부직구호도 3점이나 출토되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모두 경주에서 제작된 토기로 생각된다.

13. 영덕지역(도면 13)

피시리고분군 16호묘 주곽에서 동형의 장경호 1쌍이 출토되었다. 주곽의 북쪽에서 출토되었는데, 피장자의 두향이 북쪽이므로 머리 쪽에 동형의 장경호 1쌍이 부장된 것이 된다. 보고자는 이 장경호를 경주산으로 판단하고 있다(국립경주박물관 1999).



[도면 13] 의성·김천·안동지역 출토 (대부)장경호(S=1/6)

Ⅳ. 장경호 부장 정형의 특징과 의미

1. 장경호 부장 정형과 ‘토기제사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남지방 각 지역에서 신라 토기가 출토하는 대형묘와 일부 중·소형묘에는 장경호를 특정 공간에 세트로 부장하는 공통의 정형이 있으며, 이 정형은 장경호 또는 대부장경호를 1쌍 또는 그 이상을 세트로 하며, 주부곽식이라면 주로 주곽의 망자 머리 쪽에 부장된 모습으로 인지된다. 이 정형은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남지방 각 지역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고, 이 부장 정형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경호 부장 정형은 시기적으로 경주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고, 점차 지방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장경호 부장 정형은 신라 중앙에서 먼저 정형화하고 주변 지역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장경호 부장 정형은 신라 중앙에서 먼저 출현해 점차 지방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둘째, 장경호 부장 정형은 신라 토기가 출토되는 영남지방의 각 지역에서 폭넓게 확인되므로 어떤 규범의 존재를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이 규범을 ‘토기제사법’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제사법이 고고 자료로 나타나는 형태는 무덤에 부장된 정형성이지만, 실제로는 무덤에 부장되기 이전 제사상에 차려지는 배열이나 배치(김용성 2008), 그리고 특정 음식을 특정 용기에 담아야 하는 규칙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고고학자에게 인지되는 ‘토기제사법’은 장경호의 부장 정형이겠지만, 실은 이 장경호는 무덤 밖에서, 무덤 부장 이전에 거행된 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어쩌면 장경호 1쌍 그 자체가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토기제사법’이란 토기가 무덤에 부장되기 이전, 제사상과 같은 공간에 토기를 배열하는 방식부터 특정 용기에 특정 음식을 넣는 규칙, 무덤에 부장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 전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에서 확인되는 장경호 부장 정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찾아진다.

[표 1] 지역 별 장경호 부장 정형

	고분	장경호	부장위치	비고
경주	월성로가6호	동형1쌍 장경호	머리	
	월성로가13호	동형1쌍 장경호	머리	
	사라리7호	동형1쌍 유개대부장경호	주곽 머리	발치에도 동형 1쌍 장경호 부장
	인왕동1호	동형2쌍 대부장경호	머리	
	덕천리5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머리	
	노서리4호	동형2쌍 (대부)장경호	머리	1쌍은 대부장경호
	사라리525번지 6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머리	
보문동 합장분	동형1쌍 대부장경호	머리		
경산	조영C II-1호 주곽	동형1쌍 유개대부장경호	주곽 머리	
	조영C I-1호 주곽	동형2쌍 대부장경호	주곽 머리	
	조영E I-1호 주곽	동형2쌍 대부장경호	주곽 머리	
	불로동91호 2-1곽	추정동형1쌍 대부장경호	주곽 ?	주곽의 내부 교란층 출토
	불로동91호분 4곽	동형2쌍 대부장경호	주곽 ?	주곽의 내부 교란층 출토
부산	복천동 10·11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부곽	동형의 장경호 다수 출토
	복천동 21·22호	동형1쌍 장경호	주곽 머리와 발치	머리와 발치에 발형기대와 세트 출토
대구	복천동 53호	동형1쌍 장경호	부곽	동형의 유개대부호 1쌍 출토
	문산M2-2호	1쌍 유개장경호	주곽 ?	발형기대와 세트
	문산M2-1호	동형의 장경호	부곽	동형의 장경호 다수 출토
	문산1-1호	동형의 장경호	주곽 ?	
	문산2-2호	동형의 장경호	부곽	
	문산3-3호	동형의 장경호	부곽	
	문산3-5호	동형의 장경호	부곽	
	문산4-2호	동형의 장경호	부곽	
	문산4-3호	2쌍 유개(대부)장경호	주곽 머리	동형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부장
	문산4-4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부곽	
	화원 성산리1호	1쌍 장경호	주곽 머리	동형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부장
화원 성산리3곽	1쌍(대부)장경호	머리와 발치	동형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부장	
성주	성산동38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주곽 머리	
	성산동58호	동형1쌍 장경호	부곽	성주지역 양식
	성산동58호	1쌍 대부장경호	주곽 머리	동형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부장
양산	부부총	동형1쌍 장경호 동형1쌍 유개대부직구호	머리	기형이 다른 유개대부장경호 1쌍 있음
	금조총	동형1쌍 대부장경호	머리	
	북정리 제4-가8호분	동형1쌍 대부장경호	머리	
	북정리8호	동형1쌍 유개장경호	머리	발형기대와 세트, 양산지역 양식
창녕	신기리5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머리	경주산토기
	교동1호	동형1쌍 유개장경호	머리	창녕지역 양식
	교동2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머리	
	교동3호	동형1쌍 유개장경호	머리	다수의 장경호 출토
	송현동6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	다수의 장경호 출토
	송현동7호	동형1쌍 대부장경호	머리	1점만 머리 나머지 1점은 목관과 남 단벽 사이
의성	송현동15호	동형3쌍 장경호	?	2쌍은 석실 내부 교란층, 나머지는 순장자가 있는 북단벽에서 출토
	대리리3호 1곽	1쌍 장경호	주곽 머리	완전한 동형은 아니지만 의도적인 세트 부장
안동	대리리2호 A-2호	동형1쌍 장경호	부곽	발형기대와 세트
안동	태화동7호	1쌍 대부장경호	머리	
김천	모암동1호	동형1쌍 장경호 동형1쌍 유개대부직구호	부곽	주곽은 도굴로 알 수 없음 동형 1쌍의 병도 출토
영덕	괴시리16호	동형1쌍 장경호	주곽 머리	경주산토기

우선 경산지역 대형묘에는 1쌍 또는 그 이상의 (대부)장경호가 대부분 주곽의 망자 머리 쪽에만 부장되는데, 정형이 다른 지역보다 아주 강하다. 또 중·소형묘에서도 대부분 망자의 머리 쪽에 부장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주로부터 매우 정확하게 ‘토기제사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경산 유형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러한 유형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은 현재의 자료상으로는 양산이나 창녕지역 정도를 들 수 있겠다. 이와는 달리 부산지역은 경산지역과 유사하게 일찍 신라 토기가 출현하지만, 장경호 부장 정형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 초기에는 복천동 22호 주곽과 같이 동일한 1쌍의 장경호가 주곽에 부장되기도 하나, 머리 쪽과 발치로 떨어져 부장되며, 10호 이후부터는 주로 부곽에 부장된다. 또 부산지역의 중·소형고분군에서는 장경호 부장 정형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⁵⁾, 이를 부산 유형으로 부르고자 한다. 부산지역에서 장경호 부장 정형이 뚜렷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대형묘와 중·소형묘의 부장 정형으로 볼 때, 경산지역과는 다른 유형임은 분명하다. 나머지 지역, 가령 대구나 성주지역은 장경호 부장 정형을 가지지만 경산지역과 같은 정형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대구 문산리 대형묘처럼 동일한 형태를 가진 장경호는 많이 확인되지만, 주곽이나 망자의 머리 쪽보다 부곽 등에 많이 부장되고, 반드시 짝을 이루지 않는 예도 있다. 또 발형기대와 세트로 출토되기도 한다. 여기서서는 이러한 유형을 대구-성주 유형으로 부르고자 한다. 이 유형에는 대구, 성주를 비롯해 상주지역 등이 해당할 것이다.

넷째, 위에서 유형을 나눈 것처럼 지역별로 장경호 부장 정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마다 토기제사법의 수용 정도, 수용 경로 및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경주지역과 아주 유사한 장경호 부장 정형을 가진 경산지역은 그만큼 직접 경주지역으로부터 완벽하게 제사법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부산지역은 초기에는 수용하였으나 이후에는 이어지지 않고 소멸하거나 변질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지역은 경주로부터 직접 수용했을 수도 있고 혹은 주변 정치체를 거쳐 간접적으로, 2차적으로 수용했을 수 있다. 예를

5) 예를 들어, 부산 연산동고분군이나 오륜대고분군 등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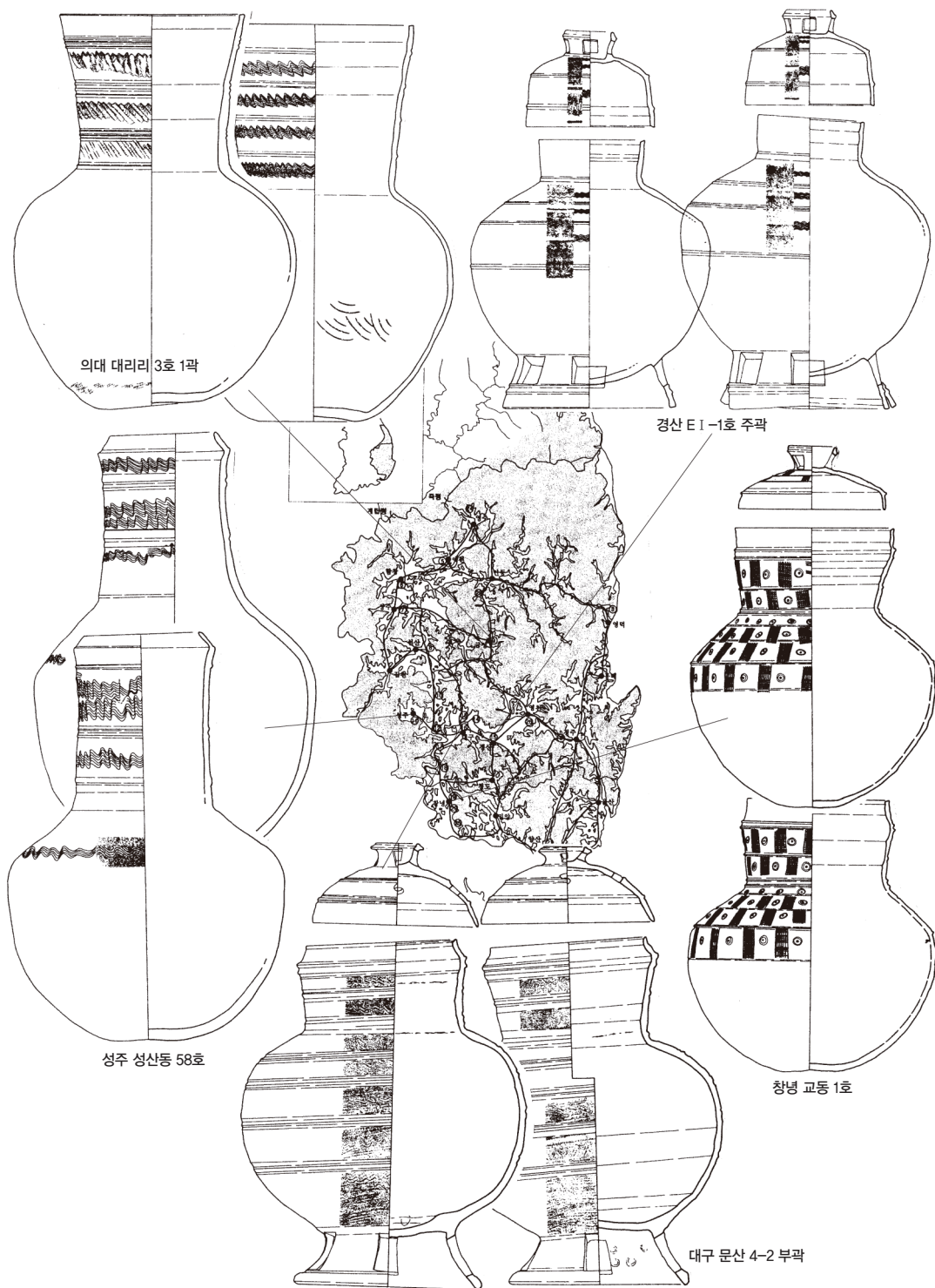
들면, 영덕지역은 괴시리 16호묘가 적석목곽묘이고, 동형인 1쌍의 장경호가 경주에서 제작된 것이므로 경주로부터 직접 제사법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달성고분군(비산동·내당동고분군)과 성주지역 토착 지배층의 묘제는 판석조로 이루어진 수혈식 석곽으로 서로 유사하므로(김대환 2002) 어쩌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수용이 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시, 그렇다면 신라 중앙으로부터 직접 전달되었다기보다 양 지역 간의 교류에 의한 산물일 수 있다. 또 발형기대와 세트로 확인되는 양상은 경주에서 잘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경주로부터 직접 전달된 것보다 다른 지역을 거쳐 수용된 것일지도 모른다. 즉 토기제사법의 수용은 신라 중앙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것도 있고, 그렇게 전달된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2차적으로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다.

다섯째, 지방에서 1쌍씩 출토되는 장경호 중에는 경주에서 제작되어 이동된 경주산토기가 있다⁶⁾. 대표적인 예로 창녕 송현동 7호 장경호, 15호 대부장경호 각 1쌍(도면 9), 부부총 출토 대부유개직구호 1쌍과 금조총 출토 대부장경호 1쌍(도면 10), 괴시리 16호 장경호 1쌍(도면 13), 김천 모암동 1-2호 대부장경호 1쌍(도면 13) 등이 있다. 이러한 토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는 지방에 지배층의 장례가 발생했을 때, 경주의 조문객 또는 조문 집단 등이 그 장례에 참가하면서 지참했던 토기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⁷⁾. 내용물을 담아 내용물을 전달했을 수 있고, 용기 자체를 전달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지방 지배층의 장례에 신라 중앙에 의한 조문 행위와 유사한 것이 있었던 것을 추론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 생각된다.

여섯째, 장경호 부장 정형이 중·소형 고분군까지 확대·수용되는 현상과 지역양식의 성립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도면 14). 대표적인 예로 경산지역은 중·소형묘에 장경호 부장 정형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지역양식의

6) 이렇게 무덤에 부장된 신라 토기 중 경주에서 지방으로 이입된 기종으로는 장경호와 고배류가 많은데, 이러한 이입된 토기가 지방의 토기 생산(특히 기형 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경산지역 지배층의 장례에 이입된 고배와 그 영향으로 제작된 경산지역 고배에 대한 논의는 김대환의 글(2007)을 참조할 것.

7)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대학교 권오영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조언과 제안을 받았다.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도면 14] 지역양식으로 제작된 (대부)장경호(S=1/6)

생성되기 시작한다(김대환 2007, 이성주 2009). 중·소형묘의 축조가 늘어나고, 토기제사법이 중·하위층에 수용·정착되면서 토기 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의 한 방법으로 표준화된 토기를 제작함으로써 지역양식이 발현된다(이성주 2009). 토기 수요의 증대는 ‘토기제사법’이 중·하위층까지 폭넓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 장경호 부장 정형의 중·소형 고분으로의 확대 현상, 즉 ‘토기제사법’의 중·하위층으로 확대는 신라 토기의 지역양식 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경호 부장 정형으로 본 ‘양식적 선택압’

다음으로 장경호 부장 정형을 통해 ‘양식적 선택압’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자. ‘양식적 선택압’과 관련해 주목되는 특징은 지역별 ‘토기제사법’의 수용 차이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경호 부장 정형에는 지역별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토기제사법’의 수용 방식 및 전달 과정과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신라 토기양식을 생산하게끔 하는 어떤 계기가 ‘양식적 선택압’이라면 그것은 경산 유형과 같이 신라 중앙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대구-성주 유형처럼 주변 정치체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또 그것은 신라 중앙 세력의 일방적인 정치적 압력일 수도 있겠지만, 경산지역처럼 토착 세력들이 오히려 더 적극 요구해 수용했을 수도 있다(김대환 2012a). 또 창녕지역과 양산지역, 그리고 대구와 성주지역은 각각 횡구식석실과 판석조 수혈식 석곽이 유행하는 지역인데, 묘제와 같은 고고 자료를 함께 고려하면, 지역 정치체의 토착 지배층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모방하면서 수용하거나 경쟁적으로 동참한 결과 나타난 현상(콜린 렌프류·폴반 2010)일 수 있다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라 토기의 확산이란 신라 중앙 세력의 정치적 확산과 같은 단일한 요인을 전제하기보다 매우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제해야 할 것 같다. 장경호 부장 정형의 출현과 전개에서 보이듯이 신라 토기의 확산

8) 이 글을 작성하는 초고 단계에 중간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생각은 그 당시 충북대학교 김범철 교수님의 논평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고 싶다.

도 다양한 과정으로 신라의 지방에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양식적 선택압’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반드시 신라 중앙이라는 한 곳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요인으로 발신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결국, ‘양식적 선택압’이란 장경호 부장 정형과 같은 ‘토기제사법’의 수용과 밀접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토기제사법’을 수용하면서 신라 토기를 생산하게 되고 그 결과 초기국가 신라의 지방에서는 신라 토기가 제작, 부장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양식적 선택압’은 지방의 토착 세력이 받은 ‘압력’이기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생겨난 선택과 수용이라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식적 선택압’은 신라 중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발신된 것만은 아니고 토기제사법이 경주로부터 확산되어 오면서 지방의 토착 사회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수용과 맥락은 신라 중앙 세력이 가졌던 이념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인데(주보돈 1994), 이러한 초기국가 신라(김대환 2012b)의 이념을 수용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는 묘제와 같은 다른 고고 자료와 함께 추후의 검토 과제로 삼고자 한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신라 토기 확산에 대한 2가지 가설인 ‘토기제사법’과 ‘양식적 선택압’의 실체를 장경호 부장 정형을 통해 설명해 보았다. 그 결과 ‘토기제사법’의 실체는 장경호 부장 정형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은 제사에 토기를 배열 또는 배치하는 방식이며, 특정 음식물을 특정 용기에 담는 것과 같은 규칙일지도 모른다고 추정해 보았다. 또 ‘양식적 선택압’은 ‘토기제사법’의 수용으로 신라 토기양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방 토착 사회의 지배층이나 공인의 선택으로 보았다. 이는 신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발신되는 것이 아니라, 장경호 부장법과 같은 ‘토기제사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선택되는 것이며, 신라 중앙 세력의 일방적인 정치적 압력보다 수용하는 지방 토착 세력의 의도나 전략에 의해 발현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

로 ‘토기제사법’과 ‘양식적 선택압’의 실체를 완전히 규명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토기제사법’은 이 글에서 논의한 장경호 부장 정형이외에도 다양한 정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좀 더 정치한 검토를 통해 그 다양한 정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형을 토대로 해 신라 토기의 확산이라는 현상을 지역을 단위로 ‘토기제사법’의 수용과 밀접히 관련지어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신라 장경호 부장 정형을 찾아낸 점과 이러한 부장 정형이 ‘토기제사법’의 실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양식적 선택압’이 신라 중앙에서 발신되고 전달된 ‘압력’임과 동시에, 토착 사회 지배층이나 생산자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한 점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부분은 차차 시간을 가지면서 검토해 가고자 한다. 부족한 논의이지만 선·후학의 많은 질정을 바란다.

※ 장경호 부장은 필자가 대학교 1학년 시절 처음으로 참가한 대구 시지지구 옥수동고분군 발굴조사부터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던 문제였다. 처음으로 찾아가 발굴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석곽의 단벽에 나란히 세워진 목이 아주 긴 장경호였다. 이것을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논문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권오영, 성정용, 김범철, 조윤재 교수님으로부터는 집필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지도를 해 주셨으며,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는 논문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과 유익한 제안을 해 주셨다. 또 본문과 도면에 사용한 보고서는 모두 영남대학교 이청규 교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또 한빛문화재연구원 김용성 선생님과 영남대학교 박물관 김대욱 선생님은 장경호 부장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오재진, 정수진 선생님께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 과정에서 많은 폐를 끼쳤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투고일 2012.10.10 | 심사완료일 2012.10.15 | 게재확정일 2012.11.1

참고문헌

-國文-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강릉 병산동 고분군 II』.
_____, 2007, 『강릉 초당동 유적 II』.
경북대학교박물관, 2003, 『대구 화원 성산리1호분』.
_____, 2006, 『의성 대리리 3호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1, 『상주 병성동고분군』.
_____, 2003a, 『상주 신상리 고분군 I · II』.
_____, 2003b, 『상주 성동리 고분군 II』.
_____, 2003c, 『상주 현신동 고분군』.
_____, 2004a, 『대구 불로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91 · 93호분』.
_____, 2004b, 『달성문산리고분군 I 지구-대형봉토분-1 · 2호』.
_____, 2004c, 『달성문산리고분군 I 지구-대형봉토분-3호』.
_____, 2004d, 『달성문산리고분군 I 지구-대형봉토분-4호』.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2006, 『성주성산동고분군-제38 · 39 · 57 · 58 · 59호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고분군 I -6 · 7호분 발굴조사보고 본문 · 도면』.
_____, 2012, 『창녕 송현동고분군 II -15~17호분 발굴조사보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2, 『경주 인왕동 고분군』.
국립경주박물관, 1999, 『영덕 괴시리 16호분』.
_____, 2011, 『경주 보문동합장분-구 경주 보문리부부총』.
국립경주박물관 · 경주시, 1990, 『경주 월성로 고분군』.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경주 노서리 4호분』.
권혜인, 2010, 「의성 대리리 2호분」 『이주의 고고학』,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 고고학회.
김대환, 2002, 「신라 고층의 지역성과 의의」 『신라문화』2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_____, 2007, 「고대 경산지역의 토기생산과 분배 시론」 『압록국과의 통신 토기의 메시지』, 영남대학교박물관.
_____, 2012a, 「임당유적 묘제의 신라화와 전통의 창조」 『임당 발굴 30년 그리고 압록 문화』, 영남문화재연구원.
_____, 2012b, 「한국고고학에서 '초기국가'의 제안」 『한일지역 고대왕권과 국가의 형성』, 영남고고학회.
김용성, 1996, 「임당1A-1호묘에 대하여 - 고층의 시원적 양상」 『석오윤용진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석오윤용진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_____, 1997, 「대구 · 경산지역 고층고분의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8, 「임당 고층의 장제」 『한국 고대사 속의 경산』, 경산시 · 대구사학회.
김원용, 1960, 『신라토기의 연구』, 을유문화사.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1, 『양산 금조총·부부총』.
 _____, 1992, 『창녕교동고분군』.
- 박보현, 1995, 「위세품으로 본 고신라사회의 구조」,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순발, 1996, 「백제의 국가형성과 백제 토기」 『제2회 백제사 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 백제문화
 개발연구원.
- 부산대학교박물관, 1982, 『동래북천동고분군 I-도면·도판』.
 _____, 1983, 『동래북천동고분군 I-본문』.
 _____, 1990a, 『동래북천동고분군 II-도면·도판』.
 _____, 1990b, 『동래북천동고분군 II-본문』.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2, 『동래북천동53호분』.
- 성정용, 2001, 「4-5세기 백제의 지방 지배」 『한국고대사연구』24, 한국고대사학회.
 _____, 2007, 「토기양식으로 본 고대국가의 형성」 『국가형성의 고고학』, 사회평론.
- 심봉근, 1994, 「양산 북정리 고분군」 『고고역사학지』제10집, 동아대학교박물관.
 _____, 1996, 「양산 신기리 고분군(I)」 『고고역사학지』제11·12합집, 동아대학교박물관.
- 안동대학교박물관, 1998, 『안동태화동고분군』.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9,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Ⅳ』.
 _____, 2000, 『경산 임당지역 고분군Ⅴ』.
 _____, 2002, 『경산 옥수동 고분군』.
- 영남문화재단연구원, 1999, 『경주사라리유적 I-적석목곽묘·석곽묘-』.
 _____, 2001, 『김천 모암동유적 I』.
 _____, 2005a, 『경주사라리525번지유적』.
 _____, 2005b, 『달성 문산리 고분군 I』.
- 예맥문화재단연구원, 2008, 『강릉 초당동유적Ⅲ』.
 _____, 2011, 『강릉 안현동유적-제2권 삼국시대』.
- 이성주, 1993a, 「신라·가야 사회 분립과 성장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가야 국가 발달사』, 한국상
 고사학회.
 _____, 1993b, 「낙동강 이동양식토기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의 발표요지』, 영
 남고고학회.
 _____, 2003, 「양식과 사회-삼국시대 토기양식에 대한 해석의 문제」 『강원고고학보』2, 강원고고학회.
 _____, 2004, 「기술, 매장의례, 그리고 토기양식」 『한국고고학보』제52집, 한국고고학회.
 _____, 2009, 「신라·가야 토기양식의 생성」 『한국고고학보』제72집, 한국고고학회.
 _____, 2012, 「창녕계성고분군의 역사고고학적 의의」 『계성고분군의 역사적 의미와 활용방안』, 창
 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이환상,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 이희준, 1996a, 「낙동강 이동 지방 4, 5세기 고분 자료의 경형성과 그 해석」 『4·5세기 한일고고학』,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 _____. 1996b, 「신라의 성립과 성장과정에 대한 고찰」 『신라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 _____. 1997, 「신라 고총의 특성과 의의」 『영남고고학보』20호, 영남고고학회.
- _____. 2002, 「4-5세기 신라 고분 피장자의 복식품 착장 정형」 『한국고고학보』제47집,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4, 「경산지역 고대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영남고고학』34호, 영남고고학회.
- _____. 2007, 『신라고고학연구』, 사회평론.
- 주보돈, 1994, 「신라 국호의 확정과 민의식의 성장」 『구국 황중동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 중앙문화재단연구원 · 경주시, 2005, 『경주 덕천리고분군』.
- 최종규, 1983, 「중기 고분 성격에 관한 약간의 고찰」 『부대사학』7, 부대사학회.
- 쿨린 렌프류 · 폴만, 2010, 『고고학의 주요 개념』, 도서출판 고고.
- 홍진근, 2006, 「도질토기 보수 소고」 『고고학지』1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황중현, 2003, 「경산 임당유적 출토 철기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日文-

- 藤井和夫, 1978, 「梁山夫婦塚出土陶質土器の編年に就いて-伽耶地域古墳出土陶質土器編年試案Ⅰ-」 『神奈川考古』3.
- _____. 1979,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出土新羅土器中心-」 『神奈川考古』6.
- _____. 1981, 「昌寧地方古墳出土陶質土器の編年に就いて-伽耶地域古墳出土陶質土器編年試案Ⅲ-」 『神奈川考古』11.
- _____. 1982, 「洛東江中流域古墳出土陶質土器の編年(Ⅰ)-伽耶地域古墳出土陶質土器編年試案Ⅳ-」 『神奈川考古』13.
- 定森秀夫, 1981, 「韓國慶尙南道昌寧地域出土陶質土器の檢討」 『古代文化』33-4.
- _____. 1982, 「韓國慶尙南道釜山·金海地域陶質土器の檢討」 『平安博物館紀要』7.
- _____. 1988, 「韓國慶尙北道義城地域出土陶質土器について」 『日本民族文化の生成』1, 六興出版社.

Pattern of Jar with long necked Burial in Tombs during Shilla Dynasty and Spread of Shilla Earthenware.

-Funeral Ceremony Mode with Earthenware and Selective Pressure-

Kim, Dae-hwan(Completed Doctor's Course at Kyoto University, Japan)

This article is to find out and describe Pattern of Jar with long necked Burial which can be seen in tombs of Shilla Dynasty so that the truth of two hypotheses on the spread of Shilla earthenware, 'Funeral Ceremony Mode with earthenware' and 'Selective Pressure', may be explained along with the review of the theory that Shilla earthenware was spread into provinces.

Pattern of Jar with long necked Burial is to bury a pair of jars called Jar with long necked with identical or similar shape at the head of the dead when Shilla people buried earthenware along with the dead body, which is confirmed in small, medium and large tombs in most areas which are spread with ancient Shilla tombs. From the viewpoint of time, this pattern appeared first in Gyoungju-city area, the central part of Shilla Kingdom and then spread to provinces gradually. The burial of Jar with long necked shows detailed difference by province, but its extensive pattern is characteristically confirmed. This pattern is thought to be closely related to 'Funeral Ceremony with Earthenware' proposed in the past and its substance is assumed to be arrangement or placement of earthenware like Jar with long necked. 'Selective Pressure', one of the very important hypotheses for explaining the spread of Shilla earthenware, presupposes the expansion of political control of Shilla Kingdom. However, when the process of accepting

'Funeral Ceremony with Earthenware' is considered, Selective Pressure was not unilaterally sent from the center of Shilla Kingdom. In other words, each process of accepting 'Funeral Ceremony Mode with Earthenware' like the burial of Jar with long necked is seen different at each area. Accordingly, it is thought that the process for earthenware of Shilla Dynasty to spread needs the discussion from various viewpoints as well as any political factors like the expansion of Shilla's control.

Key words : Earthenware of Shilla Dynasty, Spread, 'Selective Pressure', 'Funeral Ceremony Mode with earthenware', Jar with long necked, Accessory Burial Pattern